

### 자유총연맹 영광군지회 태극기 달기 캠페인



한국자유총연맹 영광군지회(회장 양용남)는 최근 영광을 단주리 금호아파트 전 세대에 태극기를 나눠주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벌였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kwangju.co.kr

### 호남대 중국과 친해지기, 中전통차 시음회



호남대학교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센터장 이정식)와 공자학원(원장 이정식)은 최근 조선대에서 열린 '제8회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중국전통차(茶) 전시 및 시음회를 실시했다. <호남대 제공>

###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건강타운 급식봉사



광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현)은 최근 광주시 남구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급식봉사 활동을 펼쳤다. <서부교육청 제공>

###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한마음 체육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지부장 정병운)는 지난 31일 광주시 남구 송원대학교 대운동장에서 2015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고, 줄다리기 등 체육행사를 가졌다.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제공>

### 인사

- ◆조성대 ▲기획조정부실장 겸 대학특성화지원센터 부센터장 이민창

# “‘아프다’는 ‘사랑이 필요하다’의 다른 표현”

## 전남도교육청 심리상담사 한지연 시인 시집 펴내

### 치열한 경쟁사회 속 현대인 상처로 가득 상담현장서 느낀 내용 ‘사랑’으로 버무려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 사랑이다.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만 성장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상담의 현장에서 느낀 내용을 ‘사랑’이라는 소재와 결부해 시를 쓴 시인이 있어 눈길을 끈다. 순수한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시대, 서정적인 시어로 사랑의 참 의미를 갈무리한 작품은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전남도교육청 소속 심리상담사 한지연(46) 시인, 한 시인이 최근 펴낸 첫 시집 ‘바늘꽃 사랑’(한림출판)은 사랑에 대한 헌사이자 수상록이다. 150편의 시들은 다양한 일상과 감성을 노래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의미에 수렴된다.

상담사라는 직업을 겸하고 있는 시인은 매



일 매일 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이들의 ‘아픈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라는 말은 다름 아닌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한다. 곡성 출신인 한 시인은 중학교 때부터 글쓰

기를 좋아했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빠짐없이 읽을 정도로 문학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독서는 내면의 자아와 만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자 기쁨의 통로였다. 그러나 문학소년이었던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지만 그녀는 늘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다.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엄했다. 14년 전 아버지는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 돌아가셨다.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살아오면서 부정(父痛)을 느끼지 못했지만, 돌아보니 당신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베풀고 있었다.”

한 시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야 사랑을 체감할 수 있었다. 뒤늦은 회한과 후회가 밀려들었다. 이번 시집 제목 ‘바늘꽃 사랑’은 부녀와의 관계를 중의적으로 드러낸다. ‘바늘꽃’은 아버지를, ‘사랑’은 자신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엄하지만 자식을 향해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던 아버지의 정을 형상화했다.

그녀는 2011년 ‘창조문학’ 가을호와 2015년 ‘문학춘추’ 봄호에 각각 ‘가을편지’와 ‘바늘꽃 사랑’이 당선돼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다. 전문 분야인 심리상담은 사람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데 적은 도움을 준다.

시인은 “치열한 경쟁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의 내면은 상처로 가득하다”며 “그 가운데 게임과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과 같다”고 진단한다. 즉흥적이고 일회적인 기성사회의 문화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이된 탓이다.

“하루에 평균 15~20명씩 상담을 한다. 그 중에는 직접 방문해 속내를 털어놓는 이들도 있다. 학생들만 고민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어른들과 교사들도 남모름 아픔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모두 관계의 단절로 인한 상실감에 빠져 있다.”

저자는 창작을 하는 틈틈이 심리 상담도 충실히 병행할 예정이다. 물론 이 두 가지를 지탱하는 힘은 사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근원은 사랑 때문이란단다.

“이미 있는 삶, 가지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이 무엇일까? 앞으로도 지치고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내게 글쓰기와 상담은 동전의 양면이나 다름 없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서중석 성공관대 명예교수 전남대 ‘후광학술상’ 수상



전남대학교는 제8회 후광학술상(전남대학교민주평화인권학술상) 수상자로 성공관대학교 사학과 서중석(67) 명예교수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8일 오후 1시30분 전남대 용지관 광주은행에서 열리며, 시상식이 끝난 뒤 ‘분단과 민주주의, 풀어야 할 과제’라는 주제로 서중석 명예교수의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전남대는 “서중석 교수는 일관되게 우리 사회의 민족운동과 민주화운동, 민중운동에 대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앞장서 펼쳐왔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전남대는 특히 “서 교수가 민족·민주와 운동에 대한 기념비적 연구 성과인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I·II’ 한국

민주화운동사 I·III’ 등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서중석 명예교수는 ‘민중의 삶과 투쟁’ 한국현대 민족운동연구 I·II’ 한국민주화운동사 I·III(공저) ‘6월항쟁: 1987년 민중운동의 장엄한 피노라마’ 광주학살·광주항쟁은 민족사의 분수령이었다’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 근현대사 민족운동·민주화운동·민중운동 연구를 주도했다. /채희정기자 chae@



## 26년간 매일 성묘하는孝부부

### 함평 김후덕·심정숙씨, 3대 선조 묘 주변 터 잡아

함평군 학교면 대곡마을 산기슭에서 3대 선조를 모시고 26년간 살아가는 효심 깊은 부부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김후덕(95), 심정숙(83)씨 부부.

1일 함평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김씨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의 묘소 주변을 살피고 잡초를 제거한다. 김씨는 3년간 상복을 입고 매일 제사를 올리는 시묘살이는 아니지만 거의 매일 밤낮으로 성묘한다.

김씨 부부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은 지난 1989년. 김씨는 어머니가 앞이 희히 보이는 곳에 묘를 써달라는 유언에 3년간 전국을 돌아다닌 끝에 이곳에 터를 잡았다. 과거 잘나가는 목수로 알려진 김씨는 공기 좋고 물 좋은 이곳에 3대 선조를 모시고 손수 집도 지었다.

장성군 삼서면이 고향인 김씨는 어머니 유언에 따라 영산강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에 묘를 쓰고 묘 바로 옆에 집을 지었으나 지내다가 녹록지만은 않았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냉장고,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을 일체 사용하지 못하고 암흑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학교면(면장 채대섭)은 최근 인근 땅 소유자를 설득해 전봇대를 설치하고 전기를 넣었다. 지역 주민의 도움을 받아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을 설치했다.

김씨 부부는 “이제 전기와 가스도 들어와 천석꾼이 부럽지 않다”며 “건강을 되찾아 부모님께 공을 갚고 후손들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선조를 정성껏 모시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 소 키우는 박우식씨 ‘소통의 흔적’ 펴내



농부가 하루하루 번잡한 일상과 사색을 담은 책을 펴내 화제다. 나우에서 김나무 과수원을 운영하고 소를 키우는 박우식 씨가 펴낸 ‘소통의 흔적’(심미안)은 농부가 보는 세상의 모습을 담고 있다. 책에는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소한 풍경들이 수록돼 있어 정감을 불러일으킨다.

소밭을 주는 일, 소와 송아지의 생이별 등 농부의 일상이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지루하지 않다. 화려한 수사나 과장이 없는 담백한 문장, 사람살이의 희로애락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농부로 살면서도 두 딸에게 멋진 ‘코치’로 남기 위해 책을 읽고 외국어도 공부한다. 그는 60세가 되면 주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국어 작문을 가르치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

## 이재운 양지회계법인 대표

### 광주치평로타리클럽 회장 취임



양지회계법인 이재운 대표가 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더파크리에서 열린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치평로타리클럽 ‘RI가입인존 제12주년 기념식’에서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하축

- ▲기재우·엄혜영씨 장남 형규군 이견철(전남발전연구원장)·김명숙(진도 석교초 교장)씨 장녀 지성양=6일(토) 낮 12시 서울 KW컨벤션센터 02-598-3000.
- ▲조성광(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주희숙씨 장녀 이라(안양양지초등학교)양 최희영(현대로템 미안마 주재대표)·남가연씨 차남 환우(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군=6일(토) 오후 1시 안양 웨딩노블레스 031-381-0100.
- ▲전병호(남도일보 부회장)·김금례씨 장남 정인(MBN 사회부 보조팀 기자)군 이길영·김옥자씨 장녀 주연(KG이니시스 회계팀 대리)양=13일(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프라자 1층 그랜드볼룸.

### 알림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임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 ▲사랑에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치료 발달·안정성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 양육상담 062-264-4370, 5308.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학교근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

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 동창회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보규)월례회=5일(금)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 종친회

- ▲경주 김씨 광주전남 종친회 재광 이사회=5일(금) 광주시 동구 금남로 맛집 한겨레 010-6455-6296.

### 모집

-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장엄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 ▲자원봉사자 상설프로그램 회원=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 ▲광주 장애인 문화협회원=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010-2727-1282.
- ▲요양보호사 무료교육생=신규반, 자격증반 교육생 모집 광주·전남 요양보호사교육원(전남여고 건너편) 062-222-2757, 0102.
-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험·홍보, 손발맞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 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 ▲심정재가 장기요양기관 회원=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

- 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 ▲농성문화의 집 수강생=성인미술강좌 수요일 오후 3~4시, 아동미술강좌 수요일 오후 4~5시. 천연화장품강좌 목요일 오전 11~12시. 오카리나 화요일 오전 11~12시 수강료 1개월 2만원 문의 062-362-2072.

### 부음

- ▲전운규씨 별세 조별·수정·수아·성범씨 부친상=발인 2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b>301호 故윤남선 님(여/91세)</b> 子/子婦: 조영제/김금진, 영삼/유정숙, 영용/신미숙, 영두/박금숙 女/婿: 조영자/이영철, 현숙/박진/손병태, 혜윤/최봉상 孫: 조봉근, 조정훈 *발 인: 6월 3일 *장 지: 화순 동면선영 *연락처: 227-4382	<b>401호 故백순재 님(남/53세)</b> 女: 백광미, 백희화 未亡人: 이영숙 *발 인: 6월 3일 *장 지: 보성읍 선영 *연락처: 227-4383
<b>402호 故허길엽 님(여/88세)</b> 子/子婦: /박연애, 임정란 孫: 임양근, 임영균, 임경현 女/婿: 임순덕/김영열, 임양주/노순근 *발 인: 6월 2일 *장 지: 보성 동면선영 *연락처: 227-4314	<b>101호 故임경애 님(여/91세)</b> 女/婿: 김광수/박병순 孫/婿: 박성훈, 박정현, 박정욱, 박성우, 박은찬, 심현지, 채은진 *발 인: 6월 2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b>102호 故임순희 님(여/82세)</b> 子/子婦: 임성권/박미화, 임성일/이미영 *발 인: 6월 2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